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42)(3/17/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0 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가 회복될 것임을 확신함, 3-4 절

시 91:2 -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벤전 5:8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벤전 4:12-14 -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3. 그런데도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상상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원수 마귀의 꼬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휘둘리는 것은 그 심령이 여전히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표이다. 원수 마귀는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너를 미혹시키고 속이고자 한다. 또한, 원수 마귀가 너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는, 지금 네게 있는 것들에 대한 너의 애착을 이용하기도 하고, 장래의 일들에 대한 너의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14:27), 나를 믿고 나의 긍휼을 의지하라(시 91:2). 네 자신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될 그 때가, 사실은 내가 네게 더 가까이 있는 때인 경우가 많다. 너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될 그 때가, 사실은 네가 나에게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이 네가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더라도, 네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은 아니다. 너의 현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판단해서도 안되고, 너의 감정과 기분에 휘둘려서, 마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된다.

4. 내가 잠시 너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거나, 네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위로를 너로부터 잠시 거두어 갔다고 할지라도, 네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너를 비롯한 나의 모든 종들에게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역경들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네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생각들을 안다. 네가 계속해서 형통하면, 마치 네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종종 고독하고 메마른 처지에 두는 것이고, 이것은 너의 구원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네게 준 것을 다시 거두어 가기도 하고, 필요할 때에 다시 베풀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말씀과 해설: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이다. 염려는 염려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적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3) **염려는 다른 종류의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악한 마귀는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로 인해 시험에 들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겔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막 14:38)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알게 한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깨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기에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이기셨다.

바울은 살전 5:2 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한 후에 6 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권면했다. 주의 날은 누구에게나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은 주의 날이 갑자기 임했을때 준비된 상태로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깨어 있다고 그 날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다르게 대응할 수 있고, 도둑 같이 임하는 주의 날에도 건짐을 받는다.

염려의 문제도 이와 같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눅 21:34). 마귀는 둔해진 그 마음을 노리고 파고들며 그 마음에 시험을 던진다. **벧전 5:8 -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마귀가 공격하기 좋을 때이며, 시험에 들 수 있는 내면의 상태임을 기억해야한다. 깨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각성해 있는 사람은 염려가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한다. 깨어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영적인 공격을 방어하고, 최악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에 젖어 둔해 지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공교롭게도 베드로사도는 벧전 5:8 말씀(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을 하기 전 7 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했다. 염려와 함께 그 염려를 파고드는 시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 영적 각성은 염려도 떨쳐버리고 염려로 인한 각종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게 한다.

4)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성의 길을 막는다. 고난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식어지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베드로사도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벧전 4:12-14 -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당시 많은 성도들이 고난 앞에 좌절하며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의식하면서 고난 중에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가짐과 자세를 가르쳤다. 그것은 **(1)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는 것이다.** 삶 속에서의 시련, 특히 신앙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눈 앞의 고난은 우리의 육신의 길을 막는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길, 영광의 길, 복의 길이 열린다. 만약 잠시 잠깐 지나가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 앉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복과 영광의 길로 가는 길에서 주저 앉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어려움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히 12:1).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영적 경주를 감당하여 주의 복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2. 주께서 미국 땅에 세워주신 한인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고 충실히 받들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 하는 교우들을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